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6 제7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4-9] 인문 통합

사회 계약의 작동 원리에 관한 논의

지문 평가

'전통적 사회 계약설'이 갖는 한계에 대한 극복 시도가 '롤스'와 '스캅스'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롤스의 한계가 스캅스에 의해서 어떻게 극복되는지 정확히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서양 철학 - 롤스

전통적 사회 계약설, 자연 상태, 롤스, 무지의 장막,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 질서 정연한 사회, 정의감

(나) 인문 - 서양 철학 - 스캅스

스캅스, 진화론적 게임 이론, 죄수의 딜레마, 협력, 배신, 사슴 사냥 게임, 협력의 균형, 배신의 균형

(가)문단 1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기본 전제

1) 전통적 사회 계약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국가가 발생했다고 보는 학설이다.

▶ 태초에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전통적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이는 개인들 간 합의의 결과이다.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켜 '자연 상태'라 하는데……

2) 자연 상태란 개인들이 생명과 소유물에 대해 위협에 노출된 투쟁적 상황을 말한다.

▶ 전통적 사회 계약설은 계약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자연 상태'로 가정한다. 결국 개인들은 각자의 생명과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생기나 보다.

3) 전통적 사회 계약설은 투쟁적 상황을 가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은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두 번째 가정이다.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발생하더라도, 적어도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여 계약 성립에 도달한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다.

4) 그런데 이 가정들을 인정하면 계약의 성립이나 준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답하기 어려워진다.

▶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여러 대답들이 제시될 테다.

5) 개인들이 투쟁하며(→ 자연 상태)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이루기 힘들며, 설사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문제의 양상이 두 가지임을 파악하자. ① 사회 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든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② 그것이 계속해서 준수되는 것도 어렵다는 거다.

(가)문단 2 전통적 사회 계약설에 대한 롤스의 설명

1) 이에 대해 롤스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에 대한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 문단(1-4)의 질문에 대한 '롤스'의 대답이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2) 무지의 장막이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롤스는 무지의 장막이 작동한다면 누구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게 되어 사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한마디로 국가가 발생하였을 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어느 계층에 위치할지를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①)는 주장이다.

▶ 이때 어떻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합의되는지를 파악해야겠다.

3) 그 하나는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기본권과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이다. 어렵지 않다. 내가 어느 계층에 속할지 알 수 없다면, 적어도 기본권과 기회는 공히 주어져야 한다는 명제에 당연히 합의할 수밖에 없을 테다.

4)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는 '차등의 원칙'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인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나 정책에 대해서만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된다는 원칙이다.

▶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이다. 이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기 위한 원칙이다.

▶ 이러한 원칙이 합의될 수 있는 것은 무지의 장막에 의해 각 개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맴돌기 때문이겠다. "국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국가에서 최소 수혜자라면 어떡하지? 나는 언제나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니까, 최소 수혜자를 위한 원칙에 동의해야겠어."

5) 예컨대 A가 40, B가 35, C가 25의 이익을 얻는 정책과 A가 38, B가 33, C가 29의 이익을 얻는 정책이 있을 때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C의 처지가 더 많이 개선되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

▶ 이해가 어렵다면 예시를 적극 활용하자. 한마디로 각 개인은 무지의 장막에 의해 내가 언제든지 C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C의 처지가 더 많이 개선되는 후자를 택해야 한다'라는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것이다.

▶ 주의할 것은 C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큰 정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C의 이익은 두 경우 모두 가장 작다. 그럼에도 두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익이 더 큰 것을 선택하여 C의 처지가 개선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만 있다면 그 정책이 C의 처지를 개선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제적 불평등, 즉 A와 B가 C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용인된다.

6) 롤스의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따짐에도 이 원칙들로 인해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 계약 체결까지의 개인들은 마치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무지의 장막'에 의해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 **주목** 이렇게 롤스는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두 가정을, 그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문단 3 롤스의 사회 계약설의 한계

- 1) 나아가 롤스는 사회 계약이 체결되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인 **‘질서 정연한 사회’**가 도래하여 계약이 계속 준수된다고 설명한다.
 - ➡ 롤스에 따르면 ①이 해결되면 ②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계약이 계속 준수되기 때문이다.
 - ➡ 그렇다면 이러한 ‘질서 정연한 사회’가 왜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되는지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텐데……
- 2) 계약의 체결 후에는 개인들이 **‘정의감’**을 공유하게 되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 ➡ 자기의 이익만을 고려하던 개인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갑자기 ‘정의감’을 공유하게 된다…… 다소 당혹스럽지만, 일단 이게 롤스의 주장이니 수용하고 넘어가자.
- 3) 그런데 롤스의 사회 계약설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롤스의 논리가 순환함을 지적한다. 롤스는 그 정의감이 결국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 ➡ 롤스의 사회 계약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다. “아니 그렇다면 그 ‘정의감’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러자 롤스는 이렇게 답한다. “그 ‘정의감’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온다.”
 - ➡ 여기서 순환 논증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정의감에 의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의감이 다시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도래한다고 설명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 4) 이 입장에 따르면 롤스는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한계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 ➡ 결국 롤스는 ①은 해결했지만, ②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나)문단 1 스킴스의 비판적 논의

- 1) 롤스의 사회 계약설마저 사회 계약의 준수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킴스’는 진화론적 게임 이론**을 도입하였다.
 - ➡ (가)의 문단3-4)의 마무리를 그대로 잇고 있다. 스킴스의 ‘진화론적 게임 이론’이 ①은 물론, 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 2) 스킴스에 따르면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 ➡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첫 번째 가정인 ‘자연 상태’를 스킴스가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이를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거다.
- 3) **‘죄수의 딜레마’**는 공범인 A와 B 두 명이 모두 붙잡혔고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협력’**과 자백하는 **‘배신’**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서로 모른다고 가정할 때 둘의 선택에 따라 형량의 측면에서 A에게 주어질 이익이 <표1>과 같은 상황이다.

A \ B	협력	배신
협력	3	1
배신	4	2

<표1>

A는 B가 협력을 하든 배신을 하든 공히 배신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배신을 선택할 것이다.

➡ 그대로 <표1>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A 입장에서는 무조건 ‘배신’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A \ B	협력	배신
협력	3	1
배신	4	2

A \ B	협력	배신
협력	3	1
배신	4	2

- 4) 결국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을 통한 사회 계약이 힘들고 둘 모두의 배신이 유일한 균형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 ➡ 이를 지문의 화제인 ‘사회 계약’의 측면에서 해석한 내용이다. 결국 개인의 입장에서 협력[→ 사회 계약 체결에 합의] 대신에 배신[→ 사회 계약 체결에 합의 X]을 택할 수밖에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 ① 주목 한마디로 ‘자연 상태’를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으로 이해해서는 ①을 해결할 수가 없다.

(나)문단 2 사슴 사냥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 자연 상태

- 1) 스킴스는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이 있으며, 개인들이 언제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되[→ 전통적 사회 계약설의 두 번째 가정] 나의 선택이 나를 향하는 다른 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도 고려하여 선택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자연 상태가 **‘사슴 사냥 게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 ➡ 타인의 처지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는 얘기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항상 배신을 택하는 것이 유리했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과 달리, 상대의 선택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 따라서 자연 상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라 ‘사슴 사냥’ 게임과 유사하다는 게 스킴스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게임이나 하면……
- 2) 이는 A와 B가 사냥을 할 때 둘 모두가 협력하면 사슴 사냥에 성공하여 둘 다 높은 이익을 얻지만, 협력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배신하고 토끼 사냥에 나서서 작은 이익을 취하면 협력을 선택한 측이 매우 낮은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A에게 주어질 이익은 <표2>와 같다.

A \ B	협력	배신
협력	3	1
배신	2	2

<표2>

결국 A는 B가 협력한다고 가정할 때 협력을 선택하고, B가 배신한다고 가정할 때 배신을 선택할 것이다.

➡ 마찬가지로 <표2>를 참고하여 이해하자. 이 경우에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과 달리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A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도 달라진다.

A \ B	협력	배신
협력	3	1
배신	2	2

A \ B	협력	배신
협력	3	1
배신	2	2

- 3) 이 상황에는 둘 모두 협력하는 **‘협력의 균형’**과 둘 모두 배신하는 **‘배신의 균형’** 등 두 가지 균형이 있는 것이다.
 - ➡ 문단1-4)의 설명과 대조하여 이해하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는 ‘배신의 균형’이 유일하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 균형이 존재한다.
 - ① 주목 ‘사슴 사냥’ 상황에서는 각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A와 B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①]는 얘기가.

(나)문단 3 사회 계약을 가능케 하는 작동 원리

1) 그런데 사슴 사냥 게임이 벌어지는 대개의 상황에서는 [나의 선택이 상대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실제로]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므로, 게임 참여자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이 보장된 배신을 선택하기 쉽다.

➡ 중요한 지적이다. 실제로 상대방의 선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상대방이 협력하든 배신하든 안전하게 2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신'을 선택하기가 쉽다.

2) 스킴스는 사회 계약의 문제란 결국 자연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배신의 균형'으로부터 ……

➡ 1)에 의해 쉽게 도달하게 되는 '배신의 균형'은 결국 자연 상태와 다르지 않다. 계약이 체결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3) …… 사회 계약의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협력의 균형'으로의 이동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보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력의 균형'에 도달 → ①할 수 있느냐는 거다.

4) 스킴스에 따르면 그러한 이동을 촉발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작동 원리는 두 가지이다.

➡ 집중하자. 그러한 이동을 촉발하는 원리가 사회 계약의 성립 → ①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러한 이동을 유지시키는 원리는 그러한 계약의 지속적 준수 → ②에 대한 설명이겠다.

5) 하나는 게임 참여자가 반복되는 게임을 통해, 배신하는 대신에 협력하는 이들을 구별하는 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협력하는 이들끼리 게임을 벌일 확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① 맥락 짚기 '롤스'가 ②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순환 논증의 오류'가 발생했지만, '스킴스'는 그렇지 않다.

➡ 첫 번째 작동 원리는 '반복 게임'이다. 게임이 한 차례만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의 균형'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6) 다른 하나는 모방에 의한 전략의 변화이다. 스킴스는 이웃에서 벌인 성공적인 전략인 협력을 모방함으로써 문화적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협력을 택한 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점차 그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작동 원리는 '모방'이다. 반복 게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배신의 균형'에 도달한 개인들도 모방을 통해 '협력의 균형'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다.

➡ 이렇게 '협력의 균형'으로 이동하여 그것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스킴스의 이론은 ①과 ②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마무리다.

[10~13] 사회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선거구 획정

지문 평가

소선거구제의 정의를 기반으로 선거구의 획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다.

지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예시를 따라가면 무난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정치 - 선거구 획정

선거구, 소선거구제, 획정,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위원회, 국회, 표의 등가성, 과대 대표, 과소 대표, 인구 대표성, 구역 조정, 경계 조정, 지역 대표성, 거대 선거구

문단 1 소선거구제와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

국회 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선거구**라 한다.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 구역을 바탕으로 하되 **인구수**까지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의 수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 의원의 수도 결정된다. 따라서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① 맥락 짚기 선거구는 행정 구역과 인구수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토대로 획정된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이해가 이번 지문의 핵심이 되겠다.

문단 2 선거구 획정의 절차와 인구수 기준

1)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정기 국회 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가결하거나 **1회에 한해**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한 차례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 획정안 제출의 주체와 획정안 가결의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확실히 챙겨 두자.

2)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5개월 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 **표의 등가성**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에서의 1표가 지니는 영향력이 동등해야 함을 뜻한다.

➡ 가령 선거구 갑은 인구가 10만 명이고, 선거구 을은 인구가 1만 명이라고 해보자.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갑이든 을이든 1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1명이다. 선거구 갑에서 당선되려면 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필요한 셈이다.

3) 1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과대 대표**와 상대적으로 작은 **과소 대표**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인구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 이는 곧 선거구 갑에서는 1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과소 대표라 한다. 반대로 선거구 을에서는 과대 대표가 발생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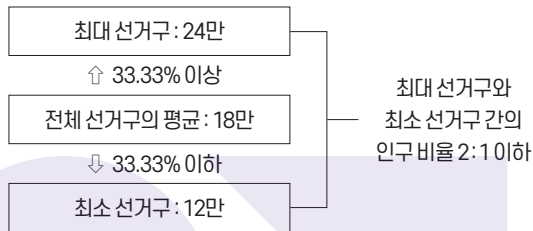
➡ 과소 대표가 발생하든 과대 대표가 발생하든 그로 인해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 인구 대표성이 약화된다.]

❶ 주목 결국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소 대표가 발생해서도, 과대 대표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모든 표의 가치가 비슷해지려면 각 선거구의 인구가 일정해야만 할 테다.

4) 2014년 헌법 재판소에 의해 정해진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인구 편차가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로 평균 인구수의 33.33%를 넘지 않도록 하여,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비율이 2: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균 인구가 18만 명이라면 그 33.33%는 약 6만 명이므로 선거구 확정 시 최대 선거구는 24만 명, 최소 선거구는 12만 명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 숫자가 나왔다고 겁먹지 말자. 차근차근 주어진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하면 그만이다. 최대 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는 평균 인구수의 133.3% 이하여야 하고, 최소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는 평균 인구수의 66.67% 이상이어야 한다.

➡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최소 선거구의 인구의 2배 이하여야 한다.



문단 3 선거구 획정에서의 구역 조정과 경계 조정

1) 선거구 획정은 행정 구역을 기본으로 하지만,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최근에는 시·군·구를 여럿 합치는 **구역 조정**이나 최소 단위인 그 이하 읍·면·동을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여럿 합치는 **경계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 최근에는 농촌 행정 구역의 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구역 조정이나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령 최소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12만 명인데, 어떤 시의 인구가 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주변의 읍·면·동을 합칠 필요가 있겠다.

➡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일지라도 각기 떨어져서 선거구가 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겠다.

2) 그런데 이들 조정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하는 문제를 낳는다. 선거구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위이기도 한데, 그 획정 과정에서 행정 구역은 물론 지세, 교통에 따른 생활 권역의 독자성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지역 공동체의 당면 사안이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기 어려우며 소수 집단의 이익도 보호되기 힘든 것이다.

➡ 행정 구역을 바탕으로 하는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대표이다. 그런데 여럿의 행정 구역을 합쳐서 1개의 선거구로 만들어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특정 지역의 안건을 대표하려는 성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3) 실제 행정 구역을 여럿 합친 것을 **거대 선거구**라고 하는데, 최근 등장한 거대 선거구들은 49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서울의 면적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까지 더 넓다. 그만큼 거대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 이렇게 인구 대표성만을 위해[→ 특정 선거구를 이루는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의 면적을 늘리는 조정을 감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다.

4) 인구수 외에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하는 것도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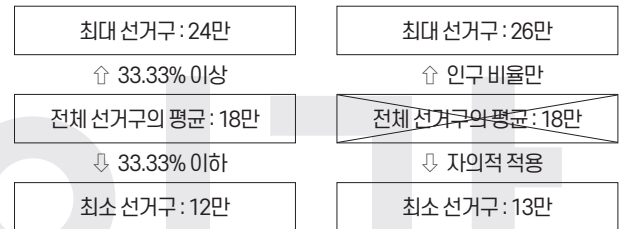
➡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대표성과 함께 면적도 고려하자는 주장이다. 문단2-4)의 인구수 기준과 흡사하게 최소 면적 이상의 최소 선거구와, 최대 면적 이하의 최대 선거구를 정하자는 것이겠다.

문단 4 평균 인구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

1) 한편 2014년 헌법 재판소가 '평균 인구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그동안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평균 인구수 기준'을 외면하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 비율만 2: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자의적인 적용을 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평균 인구가 18만 명이더라도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3만 명이면, 그 2배인 최대 26만 명의 선거구까지 허용한 것이다.

➡ 헛갈리니 쉬우니 집중하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만 2: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인구 비율만 맞추는 것일 뿐 헌법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평균 인구수를 중앙값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그런데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기준[문단2-4)]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평균 인구수 기준 O>

<평균 인구수 기준 x>

2) 다만 이는 **도농 인구 격차가 커진 여건**과 **소선거구제의 속성상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인구 대표성을 강화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헌법 재판소의 제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 다만 여기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단 얘기가. 헌법 재판소의 '평균 인구수 기준'도 도농 인구 격차가 줄거나 소선거구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충족시키기 어렵단다.

능동 수송의 원리

지문 평가

생명체와 무생물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능동 수송의 두 가지 유형과 각각이 지닌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물학 - 능동 수송, 작용기

확산, 능동 수송, 슈뢰딩거, 엔트로피, ABC 수송 단백질, MD, ABC, ATP, ADP, 인산, 당 분자, 작용기 전달 반응, 작용기, 효소 1, HPr, 효소 2, 포스포엔올피루브산(PEP), 인산-HPr 결합체, 인산화

문단 1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능동 수송

1) 무생물계에서 물질의 이동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지는 **확산**의 방식으로만 일어난다. 이와 달리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는 세포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막을 경계[→ 즉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막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능동 수송**이 일어난다.

▶ 무생물에서는 확산만이 일어나지만, 생명체에서는 확산 이외에도 생명체가 에너지를 사용해 직접 물질을 이동시키는 '능동 수송'이 일어난다.

❗ **주목** 확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능동 수송은 부자연스러움[→ 생명체의 활동이 개입된] 현상이라는 게 핵심이다.

2) **슈뢰딩거**는 이와 같이 생명의 유지에 물질을 농도를 거슬러 이동함에 따라 무질서의 정도인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생명 현상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슈뢰딩거는 이렇게 답했는 얘기다.

3) 흔히 세균과 함께 미생물로 분류되는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생명 활동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는 농도를 거스르는 물질의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 바이러스의 경우 미생물이라 불리지만, 생명체로는 간주되지 않는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능동 수송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2 ABC 수송 단백질의 구조

1) 단세포 생물인 세균에서조차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데, 이는 세균의 세포막[→ 문단1의 '생물학적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ABC 수송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진다.

▶ 'ABC 수송 단백질'에 의해 어떻게 능동 수송[→ 즉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수송]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겠다. 지금부터 그 과정이 전개될 테다.

2) **ABC 수송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MD와 ABC가 결합된 구조를 띤다. 세포막에 위치한 **MD**는 세포막을 가로질러 세균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두 개의 막대가 맞닿아 있는 모양을 띤 부위이고, ……

▶ 'MD'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것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균의 안과 밖을 오가도록 물질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3) …… **ABC**는 MD의 두 막대 각각에서 세균 안쪽 방향의 말단에 결합되어 있는 부위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분자인 ATP가 부착될 수 있는 곳이다.

▶ MD와 ABC가 결합된 'ABC 수송 단백질'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서 읽어 나가자.

▶ 문단1-1)에 따르면 능동 수송은 세포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어난다고 했으니 'ATP'가 바로 그 에너지원이겠다.

4) ABC 수송 단백질은 물질을 세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키는 것과 세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도 각기 다르다.

▶ ABC 수송 단백질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물질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물질을 이동시키기도 한다. 전자를 A라고 하고, 후자를 B라고 하자.

▶ 이때 A는 세균의 외부에서 농도가 낮고, 내부에서 농도가 높은 물질일 거다. 반대로 B는 세균의 내부에서 농도가 낮고, 외부에서 농도가 높은 물질일 거다.

❗ **주목** 능동 수송은 어디까지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자.

문단 3 ABC 수송 단백질에 의한 능동 수송

1) **ABC**는 능동 수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 개의 ATP를 부착한 후 각각을 **ADP**와 **인산**으로 분해하는데, 이렇게 두 ATP가 분해되며 발생하는 에너지가 MD에 전달된다.

▶ ABC에는 ATP가 부착될 수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문단2-3]. ATP는 각각의 부위에 부착되어 'ADP + 인산'으로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된다.

▶ 이 에너지는 ABC에서 MD로 전달된다. MD가 세포막을 가로질러 세균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임을 잊지 말자. 전달받은 에너지를 통해 분명 '수송'이 이루어질 텐데……

2) MD를 이루는 두 막대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켜 일시적으로 틈을 만들고 이 틈으로 물질을 한 번에 한 분자씩 이동시킨다.

▶ 이제 알겠다. 전달받은 에너지를 통해 아예 스스로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물질을 내부에서 외부로, 혹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한단다. 과정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ABC 수송 단백질에 의한 능동 수송 과정

ABC: 두 개의 ATP 부착 후 각각 ADP와 인산으로 분해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MD로 전달



MD: 두 막대가 형태를 변화시켜 틈 생성



이 틈으로 한 번에 한 분자씩 물질 이동

▶ 확산과 달리 능동 수송은 이렇게 농도를 거슬러 물질을 이동시키는[→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거다.

3) 세균은 이러한 능동 수송을 통해 영양분이 희박한 환경에서도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

▶ 이걸 물질을 세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키는 경우라면……

4) …… 물질 대사의 과정에서 세균 내부에 발생하는 **미량**의 독성 물질을 **극작 배출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 이걸 반대로 물질을 세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❶ **맥락 짚기** 문단-2에서 설명했듯 이러한 능동 수송은 어디까지나 '생명 현상의 본질'로, 생명체의 존속을 위한 현상이다.

문단 4 당 분자의 능동 수송

1) 세균은 생명 유지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기가 작은 영양분[→ 아미노산 등]뿐 아니라 포도당과 같은, 크기가 큰 **당 분자**들을 세포 내부로 이동시켜 축적한 후 이를 이용한다. 내부에 이미 당 분자들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때의 이동 역시 농도를 거스르는 이동에 해당한다.

➡ 지금부터는 크기가 큰 당 분자들의 능동 수송을 설명하려나 보다.

2) 그런데 당 분자들은 분자량이 커서 ABC 수송 단백질이 만드는 틈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당 분자의 섭취에는 **작용기 전달 반응**이 이용된다.

➡ 다만 이 경우에는 ABC 수송 단백질에서 MD가 만들 수 있는 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새로운 반응이 필요하단다.

❷ **맥락 짚기** 설명의 대상이 전환되는 지점이다. '작용기 전달 반응'이란 무엇 이길래 분자량이 큰 분자를 수송할 수 있는지 주목해야겠다.

3) **작용기**란 더 큰 분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를 말하는 것으로,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자신을 포함하는 분자에 특정 성질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작용기'의 개념이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일단 넘어가자. 이어서 구체적인 과정이 제시될 때 해당 개념을 다시 참조하는 편이 낫겠다.

문단 5 작용기 전달 반응

1) 작용기 전달 반응은 세포막 안쪽에 존재하는 **효소 1**과 열안정성 단백질인 **HPr**, 그리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 2**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각각의 작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세포 생물인 세균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 세균의 내부]에는 효소 1과 HPr이 있고, 세포막[→ 경계]에는 효소 2가 있다.

2) HPr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과 결합해도 그 구조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 HPr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어떤 물체와 결합하나 보다.

3) 세균이 외부의 당 분자를 인식하면 [내부에 위치함] 효소 1은 또 다른 에너지원인 **포스포엔올피루브산(PEP)**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작용기인 인산을 분리한 뒤, 이를 HPr과 결합시켜 **인산-HPr 결합체**를 형성한다.

➡ 먼저 효소 1은 PEP로부터 인산을 분리한다. 이때의 인산은 바로 작용기로, 이런 식으로 분리될 수 있어서 '하나의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보다 [문단4-3]. 효소 1에 의해 인산-HPr 결합체가 형성된다.

➡ 2에서 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이 바로 인산인가 보다. 외부의 당 분자를 갖고 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분자량이 큰 당 분자를 끌고 와야 하니 말이다.],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이미 세균 내부에 있던 PEP로부터 작용기인 '인산'을 활용하는 거다.

4) 이 결합체[→ 인산-HPr 결합체]가 [세포막에 위치함] 효소 2 쪽으로 이동하면 그때 효소 2는 이로부터 다시 인산을 분리하여 자신에 결합시킨다.

➡ 효소 2에 의해 인산-HPr 결합체는 분리된다[→ HPr은 결합체를 형성할 때도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만큼, 추후에 다시 또 인산과 결합하여 재활용될 것 같다.].

➡ 그리고 인산은 다시 효소 2와 결합된다. 아마 효소 2가 외부의 당 분자를 내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인산의 에너지를 써먹어야 하기 때문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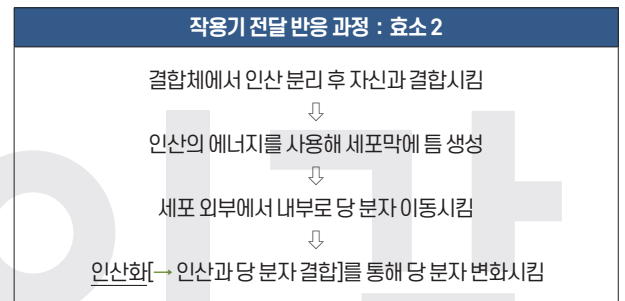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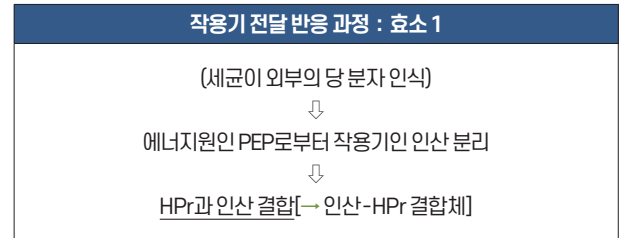
5) PEP에서 떨어져 나온 작용기인 인산은 ATP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지녀서, 효소 2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당 분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틈을 세포막에 형성하고, 그 틈을 통해 당 분자를 세포 내부로 이동시킨다.

➡ 효소 2는 인산이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 분자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틈을 만들 수 있다.

6) 이 과정에서 효소 2는 자신에 결합되어 있던 인산을 분리하여 당 분자와 결합시키는 **인산화**를 통해 당 분자를 변화시킨다.

➡ 마지막으로 인산은 다시 분리된 뒤 당 분자와 결합하여, 당 분자를 변화시킨다[→ 문단4-3에서 언급했듯 특정 성질을 부여한다.].

➡ '작용기 전달 반응'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7) 당 분자는 이렇게 인산과 결합된 상태로 세균 내에 축적되어 있다. 세균의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는 세균이 무생물이거나 생명이 없는 미생물인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속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이다.

➡ 무한한 마무리다. 그대로 이해하자.

(나) 「태평천하」 채만식

작품 평가

「태평천하」는 1937년에 연재된 장편 소설로서, 친일 악덕 자주 '윤 직원 영감'을 중심인물로 삼고 있다. 서술자는 부정적인 이 중심인물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풍자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 특징적인 서술 방식에 주의하면서 읽도록 하자.

오줌도 먹고[→ 어린아이의 아침 첫 소변이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이웃에서 사다 먹는 거다.] 보건 체조도 하고, 좋은 보약도 먹고 해서 어떻게든지 몸을 충실히 하여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윤 직원 영감의 크고 큰 소원입니다.

▶ 경어체를 사용하여, 마치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매일 아침 남의 오줌까지 먹는 걸 보면 윤 직원 영감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만식의 부를 그대로 누리면서(아니, 자꾸자꾸 더 늘려 가면서) 오래오래 백 살 이백 살, 백 살 이백 살이라니, 천 살 만 살(아니 천지가 무궁할 테니, 그 천지로 더불어 무궁토록)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가산을 남겨 두고, 이 좋은 세상[→ 일제 말기 엄혹한 시대를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부정적인 인물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을 백 살을 못 살고서 죽어 버리다니, 그건 도저히 원통하고 섭섭해 못할 노릇입니다.

▶ '부를 그대로 누리면서'라고 했다가 '아니, 자꾸자꾸 더 늘려 가면서'라고 정정하고, '백 살 이백 살'이라고 했다가 '천 살 만 살(아니 천지가 무궁할 테니, 그 천지로 더불어 무궁토록)'이라고 자신의 말을 거듭 정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정은 글을 쓸 때가 아니라 말을 할 때에 나오기 쉬운 것인데, 이렇게 구술의 형태를 흉내 내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적 서술 방식이다.

옛날의 진시황(秦始皇)은 영생 불사를 하고 싶어, 동남동녀 오천 명을 동해의 선경으로 보내어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다지만, 우리 윤 직원 영감도 진실로 그만 못지않게 영생의 수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영생 불사에 대한 윤 직원의 욕망이 진시황 못지않다는 말이다.]

하기야 걸핏하면 머, 내가 앞으로 오십 년을 더 살겠느냐, 백 년을 더 살겠느냐, 다직(=기껏) 한 십 년 더 살다가 죽을걸…… 어찌구 육장(=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이런 소리를 하곤 하기는 합니다.[→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결에서 지금껏 있어 왔던 일들을 늘 지켜봐 온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천지의 공도(公道, 당연한 이치)요 하니까[→그러니까] 사실도 사실이었지만, 윤 직원 영감은 비록 말은 그렇게 할 값에, 마음은 결단코 앞으로 한 십 년 그거나 더 살고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

절대로 영생 불사…… 진시황과 같이, 간절하게 영생 불사를 하고 싶습니다.

▶ 영생 불사에 대한 윤 직원의 욕망이 진시황 못지않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참고 지문의 이후 부분에서는 진시황이 나라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은 것처럼, 윤 직원이 자신의 두 손자를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서술한다. 그런데 사실 진시황은

겨우 오십 살 무렵에 죽었고, 그의 나라는 그 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망했다. 서술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윤 직원의 욕망이 진시황과 같다는 점만 거듭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윤 직원의 욕망 또한 진시황의 욕망처럼 허무하게 좌절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서술자가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중심인물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대개 인간의 교육 사업이나 또는 임시 임시의 빈민 혹은 이재민의 구제 사업인데, 그들이 찾아와서는 사연을 주욱 이야기한 후, 그러니 영감께서도……[→기부를 해 달라는 부탁이겠다.] 이렇게 청을 합니다.

▶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일을 서술하는 부분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후의 대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을 마치 현재의 대화 상황처럼 구체적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다 듣고 나서는, 시침 뚜욱 따고 대답입니다.

“예예! 거 다야 존 일이지요. 히여야 허구말구요……. 그런데 나년 시방 나대루 수십 년지간 해마다 수수백 명을 구제허구 있으닝개루, 그런 기부나 구제애넌 참여를 안 히여두 죄루 가던 안 헐 티닝개루 그만돌라우!”

“네에! 거 참 매우 장하십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신지요?”

객은 들던 바[→윤 직원이 구제 사업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다.]와는 다르다고 탄복해서, 아무튼 그 사업 내용을 수인사(=인사를 차림)로라도[→딱히 궁금하지 않더라도] 물어 볼밖에요.

“예에…… 내가 시방 한 만석가랑 추수를 허우. 그러구 작인이 천 명 가까이 되지요. 그러닝개 천 명 가까운 작인덜한테다가 눈을 주어서, 농사를 히여 먹구살게 허넌 게 구제허구넌 큰 구제 아니요?”

▶ 1년에 만석의 수확을 얻는 만석꾼 자주[→오줌으로 치면 재벌]이고 천 명 가까운 소작인들한테다가 눈을 주어서, 농사를 해 먹고살게 해 주니 큰 구제를 하고 있다는 거다.

이 말에 웬만한 사람[→웬만큼 눈치가 있는 사람]은 속으로 웃고 진작 말머리를 돌리겠지만, 좀 귀가 무딘[→말귀가 어두운] 패는 더욱 탄복을 하여 묻습니다.

“네에! 그러면 근 천 명 되는 소작인들한테 소작료를 받지 않으시구 눈을 무료루 내주시는군요? 네에! 히여[→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는 감탄이겠다.]”

“아—니, 안 받으면 나년 어떻게 허구……? 원 참……. 여보 글씨, 제 눈 갖구 앉어서 도지(=소작료로 해마다 내는 벼)두 안 받구 그냥 지여 먹으라구 내주넌 그런 빙신 천치두 있다우?”

윤 직원 영감은 이렇게 당당히 나무랍니다.

듣는 사람은 분반(噴飯, 입 속에 있는 밥을 내뿜는다는 뜻으로, 참을 수 없어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이르는 말)할 난센스나 또는 농담으로 돌리겠지만, 윤 직원 영감 당자는 절대로 엄숙합니다.

▶ 상식적으로 소작료 다 받고 소작 주는 게 무슨 구제 사업이겠는가 싶어 당연히 농담인 줄 알겠지만 윤 직원은 진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다.

지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소작으로 주는 것은 큰 선심이요, 따라서 그들을 구제하는 적선(積善)이라는 것이 윤 직원 영감의 지론이던 것입니다. 윤 직원 영감의 신경(神經)으로는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윤 직원의 사고방식이 두루 특이하다는 거다.] 논이 나의 소유라는 결정적

주장도 크지만 소작 경쟁이 언제고 심하여, 논 한 자리를 두고서 김 서방 최 서방 이 서방 채 서방 이렇게 여럿이, 제각기 서로 얻어 부치려고 청을 대다가는[→ 너나없이 먹고살기 힘들었던 당대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필경 그중의 한 사람에게로 권리가 떨어지고 마는데, 김 서방이나 혹은 이 서방이나 또는 채 서방이나에게로 줄 수 있는 논을 최 서방 너를 준 것은 지주 된 내 뜻이니까, 더욱이나 내가 네게 적선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윤 직원 영감의 소작권에 의한 자선 사업의 방법론입니다.



[27~30] 현대시

(가) 「거문고」 김영랑

작품 평가

일제 말기에 창작된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과 결부하여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에는 제목인 '거문고'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기린'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거문고를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 1연 울지 않는 나의 기린[→ 거문고]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 어지러운 세상이 바로잡힐 전조로 출현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로, 울음소리가 음악의 음계와 일치한다고 함)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 기린은 태평성대가 와서 성인(聖人)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는 상상의 동물인데 '검은 벽'에 기대서서 스무 해 동안 울지를 못하고 있다. 즉 거문고가 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20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좋은 세상이 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암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 **참고** | 이 시의 발표 시기가 1939년임을 고려한다면, 20년 전은 바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을 의미한다. '기린'의 원관념이 '거문고'임을 고려할 때, 거문고가 연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3.1 만세 운동 이후 억압적 시대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 2연 노인이 떠난 후의 기린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거문고를 훌륭하게 연주했던]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행여나 어찌하면) 잊어졌을라

▶ 기린의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이 '끝없는 향연'의 자리에 있다고 표현한 것과 '땅 위의 외론 기린'이라는 표현에서, 노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제2연에서 거문고가 연주되지 못한지 이미 오래라고 했으니, 노인이 거문고를 연주하던 때는 그보다 더 이전일 것이다. 이는 평화롭고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었던 국권 상실 이전의 시대이거나, 아직은 의기 있고 뜻 있는 자들이 있어 3.1 만세 운동 같은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 제2연이 거문고가 연주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제시했다면, 제3연은 거문고가 연주되었던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며, 거문고가 다시 연주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연주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제 3연 바깥세상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처한 기린

바깥은 거친 들 이리 떼[→ 일제]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일제를 추종하거나, 굴복하여 변절한 무리들] 소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 둘 곳 몸 둘 곳 없어지다

▶ 기린이 있는 공간의 바깥세상은 '이리 떼'와 '잔나비 떼'가 활개를 치고 다니다 기린은 뜻을 펼치거나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린이 거문고이고, 어두운 시대 현실 때문에 자신의 소리를 잃은 존재라고 본다면, 기린과 거문고는 곧 시인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시는 거문고의 처지에 빗대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시를 쓰지 못하는 시인의 답답함과 비애를 표현한 시로도 읽을 수 있겠다.

제 4연 해가 바뀌어도 닫힌 문 안에서 울지 못하는 기린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이제 문이 '아주 굳게' 닫힌 상황이다. 또 한 해가 가는데도 기린은 마음 놓고 울지 못한다. 문을 굳게 닫았다는 데에서 바깥세상을 멀리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발적인 은거를 통해 일제의 폭압적 현실에 대해 저항하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 제1연에서 20년이 되도록 기린이 '영영 울지를 못한다'라고 한 것이나 제4연에서 해가 바뀌어도 기린이 '울들 못한다'라고 한 것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런 현실이 쉽사리 극복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다.



이감